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민주당 전북도당, 추석 맞아 꽃발정이 복지관 배식 봉사·서부시장 장보기 나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추석을 맞아 27일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김춘진 도당위원장, 김윤덕 전주 시갑 지역위원장,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 등 도당관계자와 송성환 도의원, 김은

영·김형덕·소순명·이정신·오평근·박현규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북도당은 첫 방문지로 전주시 평화동 꽃발정이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600여명 어르신을 위한 점심 배식봉사

는 지역 어르신들을 더 가까이 보살피겠다는 민주당 당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졌다. 이어 전주 서부시장을 방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화장지·치약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후원 물품을 구입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민생, 안보, 미래, 지방 등 5생 예산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해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김관영, 추석 연휴 민생 대장정 돌입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김관영 의원이 지역 민생행보 강화에 돌입한다.



김관영 의원

김 의원은 전통시장 장보기는 물론 상인들과의 만남과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 인사를 나누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군산조산소 폐쇄 전후 침체 일로인 군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기 속 대안 찾기’에 하나 되지’는 캠페인을 재연했다.

또한 총선 공약 점검 일환으로 유치에 성공한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개통 초읽기인 동백대교 현장 그리고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된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역을 차례로 방문하고 관과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지역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군산조산소 재가동을 목표로 정책질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의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과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캐스팅 보터’ 당의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인사들 다수가 김 의원을 찾아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민의 든든한 지원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위해 주민주권과 더 지주,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14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민원인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운동 김관영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리는 민원인의 날은 시민 누구나 국회의원 민원창구를 쉽게 활용하고, 접수된 사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든 김 의원의 지난 20대 총선 공약의 하나다. /김진성 기자



출근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련 논란에 휩싸인 동시에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도 공·사립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된다

도의회 장명식 위원장 폐지 촉구 주장에 도교육청 추진... 126개교 내년 신입생부터 혜택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교육위) 위원장이 지난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실효성이 적은 고교 입학금 폐지를 촉구한다는 주장에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공·사립 고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한 촉구에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는 행정을 보인 것이다.

27일 장명식 위원장실에 따르면, 장 위원장과 도의회가 함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를 요구해 왔다.

입학금 면제대상 학교는 총 126개교(공립 63교·사립 63교)이며, 1만8,000여 명의 내년 고교 신입생들이 혜택을 본다.

올해 도내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1,500원~1만6,200원으로, 이를 내년 신입생 기준으로 산정하면 학부모는 총 2억

5,0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상산고교와 남성고·군산 중앙고·한국계입국학교·전주 예술고 등 자립형학교는 제외된다.

장명식 위원장은 “오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회-게임협회, 손잡고 청소년 보호 나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국회와 게임업계가 협력에 나선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생태계 발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와 게임산업협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문위와 협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교육활동 및 소외계층에 대한 코딩 교육, 정보화기기 제공 등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 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 체결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게임 산업의 진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국회와 게임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청소년 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게임문화 만들기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위원장은 “향후 진행되는 공동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습관을 길러주고 동시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교문위 의원들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비롯해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추미에 “5·18 특별법, 반드시 통과”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5·18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 과제로 제4·3항쟁,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지목한 바 있다”며 “두 사건은 닮은꼴이다.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백서를 기록으로 남겨야지만 다시는 그같은 불의가 이 땅에서 재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잔학하고 반 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인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헬기 기총 사격, 전투기 폭격대기 등 사실은 국민에게 끔찍하고 엄청난 충격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청와대에 개입 정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할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대담할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공세에 나섰다. /뉴스1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